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金 時 萬　敎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硏究論文

靈驗性의 이미지를 통한 陶磁表現 硏究

2010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安 美 愛

靈驗性의 이미지를 통한 陶磁表現 硏究

金 時 萬　敎授指導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안 미 애

dCollection @ sungshin

인 준 서

안미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dCollection @ sungshin

논 문 개 요

도자기는 생활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기에 변화와 전통에 순응하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도예는 옛 방식을 탈피하여 어느 때 보다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표현매체와 실험적인 조형표현 등은 미술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은 현대도예의 다양성 중 전통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독특한 도자표현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동물을 중심으로 전통의 유물과 문양 등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하면서 '새'와 관련된 조령신앙(鳥靈信仰)에 주목 하게 되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와 관련된 다양한 묘사와 조형의 언어는 현대와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니미즘(Animisim)과 토테미즘(Totemisim)성향이 강한 동물의 형상에 주술적 의미가 내포된 것은 영험성과 관련하여 승화시켜 표현하였으며, 일차적 표현을 억제하여 나타난 외형이 시작품 제작방향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형태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분할과 접합의 과정이 원만하고 형(形)을 조망하기에 유리한 속파기 기법으로 작업을 진행 하였다. 유약의 발색은 주제전달이 용이하고 절제와 단순화된 표현이 추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태(古態)되고 거친 느낌에 유념하였고, 부분적으로 테라시질라타(Terrasigillate)와 저화도 유약을 병행하여 심화된 표현이 가능하도록 시도 하였다.

dCollection @ sungshin

목 차

논 문 개 요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2

Ⅱ. 본 론 ····· 4
1. 영험성(靈驗性)의 고찰 ····· 4
1) 영험성의 의미 ····· 4
2) 인간의 주술관(呪術觀) ····· 5
3) 애니미즘(Animism) ····· 6
4) 토테미즘(Totemism) ····· 8
2. 동물의 상징성 분류 ····· 10
3. 전통 속의 조령신앙(鳥靈信仰) ····· 12
4. 한국의 전통과 현대미술에 나타난 동물의 이미지 ····· 15
1) 한국의 전통을 중심으로 ····· 15
2)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 17
5. 시작품 제작 및 설명 ····· 22
1) 제작의도 ····· 22
2) 제작과정 ····· 23
3) 시작품 설명 ····· 28

Ⅲ. 결 론 ····· 38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dCollection @ sungshin

표 목 차

【표 1】 사신(四神)과 사령(四靈)을 중심으로 ·····10

【표 2】 동물을 중심으로 ·····11

【표 3】 조합토의 조합비 ·····23

【표 4】 유약의 조합비 ·····25

【표 5】 테라시질라타(Terrasigillate) ·····26

【표 6】 중화도 안료 ·····26

【표 7】 소성 온도표 ·····27

dCollection @ sungshin

도 목 차

【도판 1】 환두대도 봉황장식(백제) ·····19

【도판 2】 백제금동대향로 뚜껑 꼭대기의 봉황 ·····19

【도판 3】 고구려 쌍영총 벽화 삼족오 ·····19

【도판 4】 신라 새모양 관식 및 입식 부분 그림 ·····19

【도판 5】 가야 오리 토기 ·····19

【도판 6】 가릉빈가 (통일신라) ·····19

【도판 7】 금제 제비모양 뒤꽂이(백제) ·····19

【도판 8】 새장식 판갑(가야) ·····19

【도판 9】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의 솟대 ·····20

【도판 10】 새무늬 청동기 ·····20

【도판 11】 치미(통일신라) ·····20

【도판 12】 지붕 합각 부분의 용두와 취두 ·····20

【도판 13】 창경궁 명정전 지붕 위의 잡상 ·····20

dCollection @ sungshin

참 고 작 품 목 차

【작품 1】 잡상이미지 I <한정연 作> ·····21

【작품 2】 숭배 <심연종 作> ·····21

【작품 3】 새 수호신 resize <조영국 作> ·····21

【작품 4】 Animals <곽태임 作> ·····21

【작품 5】 자유같은 그리움 <박명숙 作> ·····21

【작품 6】 그자리에 서서 <백경화 作> ·····21

【작품 7】 구름을 타고 나는 새야 <박명숙 作> ·····21

【작품 8】 백제의 꿈 <이상우 作> ·····21

【작품 9】 Bird 0902 <강형구 作> ·····21

dCollection @ sungshin

시 작 품 목 차

【시작품 1】 eternity Ⅰ ····· 28

【시작품 2】 eternity Ⅱ ····· 28

【시작품 3】 eternal bird Ⅰ ····· 29

【시작품 4】 eternal bird Ⅱ ····· 30

【시작품 5】 견심(堅心)의 새 ····· 31

【시작품 6】 헤아리다 Ⅰ ····· 32

【시작품 7】 헤아리다 Ⅱ ····· 33

【시작품 8】 헤아리다 Ⅲ ····· 34

dCollection @ sungshin

Ⅰ. 서 론

1. 연구목적

전통적인 회화기법에서 탈피하고자 야외에서 빛에 따라 변화하는 형상을 그리고 빛과 색의 조화, 대상과 면의 구성을 실험한 것이 인상주의(Impressionism)가 되었던 것처럼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미지에 대한 궁금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의식을 보였던 아방가르드(Avantgarde)[1]정신은 아직도 미술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고궁을 거닐다가 우연치 않게 궁궐의 처마에 있는 잡상(雜像)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잡상은 선조들의 지혜의 산물로 화재예방과 건물의 안녕을 기원하는 영험(靈驗)[2]한 조형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유사한 의미로 전래되는 조형물을 조사하는 가운데 의외로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들이 하나같이 주술이면서 벽사와 길상적 의미를 갖는다는데 주목하게 되었다.

동시대의 삶과 정서가 서려있는 옛 물건들의 사유처럼 이 시대의 또 다른 독특한 조형물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인은 전통문화의 사유 중 영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영험함에서 나타나는 강한 생명력과 토테미즘(Totemisim)적인 주술관, 인간의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동경, 그로 인해 나타나는 상상의 동물과 상징성 등은 기계적 문명 속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전통의 재해석을 바탕으로 동물의 형태를 상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

1) 아방가르드(Avant-garde)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그룹의 선두에 서서 지도하는 집단이나 부대를 뜻하며 프랑스어로 군대 중에서도 맨 앞에 서서 가는 '선발대'(Vanguard)를 일컫는 말이다. 예술에서 혁신적이고 급진적이며,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창작을 시도하는 그룹 혹은 새로운 경향이나 운동을 선보인 작품이나 사람을 칭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한국어에서는 전위(前衛)로 번역되어 전위예술, 전위음악, 전위재즈와 같은 낱말에서 쓰인다

2) 영험(靈驗) : '영검'의 원말. 사람의 기원(祈願)에 대한 신불(神佛)의 영묘한 감응. 불교에서 부처 또는 보살에게 빌거나 경전을 외우거나 하면 나타난다는 불가사의한 효험.

dCollection @ sungshin

의미를 함축시키고 절제시킴에 따라 발생되는 형태의 추상성과 상징성을 통하여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야나기 무네요시가 “자연과 역사는 예술의 어머니” 라고 했던 것은 역사 속에 녹아 있는 사실들이 예술가들에게 지표가 된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된 독특한 전통의 미감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가려진 진실들은 한눈에 잘 읽혀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합리적 사고에서 발생한 서양미술과는 달리 동양미술은 독특한 사유(思惟)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인은 우리 문화 속에 산적한 전통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길상적이고 벽사적인 특징을 발견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가운데 영험함을 나타내는 조형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심상을 통하여 시작품제작에 임하고자 한다.

특히 동양에서는 ‘새’ 를 숭상하는 풍습과 조형물에 내재된 의미를 관조하면서 ‘영험성’ 의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새’ 는 다른 동물과 달리 생활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실은 인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형상으로 유추할 수 있었고, 날카로운 시선 등은 조형에 중요한 구실이 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 과정의 체계를 갖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① 시대별 유물자료 수집 및 분류.

② 원시미술의 이해.

③ 한국전통문양의 의미별 분류 중 ‘새’ 토템에 관한 자료 수집.

dCollection @ sungshin

④ 영험성의 표현과정 고찰 및 분야별 차용과 변용의 과정 드로잉.

⑤ 단순, 절제미를 유념한 시작품제작.

제작방법은 사료에 나오는 형태와 문양을 변용하거나 차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형태를 위해 와이어(Wire)로 커팅(Cutting)하여 외형을 성형하였고, 속을 파내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유약의 발색에도 신중하였다.

dCollection @ sungshin

Ⅱ. 본 론

1. 영험성의 고찰

1)영험성의 의미

우리는 민속신앙이나 종교 속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접할 수가 있다. 흔히 민속신앙에서 나타나는 산신령 이야기라든지, 사람을 구해준 호랑이 이야기처럼 전설이나 설화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들을 말한다. 이 이야기들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묘한 감흥이 일게 만들곤 한다. 그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로서 옛 우리 선조들은 상상을 하여 그림이나 조형물로 그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주술성을 띄면서 영묘(靈妙)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험함의 의미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며, 주술의 의미가 부각되기 보다는 주술성의 형상을 제작하였던 당시의 시대적정신의 이념과 그 형상을 제작한 사람의 마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유물들은 숭고한 정신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영험성의 조형언어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형작업으로 표현함으로써 현대도예 가운데 독창적 의미가 되고자 하였다.

고대인들은 영험함의 표현으로써 동굴벽화나 기이한 도형의 패턴, 동물 가면, 주술의식 등을 통하였는데, 이러한 의식의 표현은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러 방면을 전제로 삶의 길(吉)함을 점치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기원전 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까지도 그 역할들이 수행되고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

dCollection @ sungshin

다. 그 예로 묘 자리를 보는 행위나, 제사를 지내거나, 그릇 등의 생활용품에 '卍', '福' 자를 넣거나, 궁궐의 처마 끝에 있는 치미【도판10】나, 해태상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인간에게도 완벽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염원을 하거나, 기원을 하는 형태로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2) 인간의 주술관(呪術觀)

인류가 시작되고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스스로의 존재를 각인하기 어려웠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벗어남은 불확실하고 공허하며, 생명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속의 자연은 불가해한 것, 무한한 것이라고 보았고, 인간이 이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붙잡으려했다.[3)]

선사시대인의 주술은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부분이 자연현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였다. 자연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며 극복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인간 본능이 주술을 낳게 하였으며, 주술행위를 삶의 한 방편으로 여겨올 수 있었다. 원시인들은 처음엔 어떤 동물을 사냥하였는지 단순히 기록하는 행위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지만, 점차 그것에 기원하는 의미가 내포되면서 주술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주술은 특정 물건이나 행위가 나타내는 상징에 대해 강한 믿음과 신뢰를 지니고 있다.[4)] 그 예로 동굴벽화의 동물 형상은 원시인들이 사냥을 나가기 전 공포와 두려움을 덜어 내고 자신감을 얻고자 형상화한 주술성의 그림으

3) 곽태임,「동물형상의 상징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11
4) 노태범,「주술미술의 상징성과 그 형상화에 대한 연구 -부작의 현대적 해석과 변용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2

dCollection @ sungshin

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표출하여 그 대상을 하나의 형상으로 표현하려는 본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이상을 표현하려 한 것으로, 인간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대상을 추상화시켜 상징으로 삼으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술은 점차 발전하여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을 낳게 된다. 이와 같은 종교적 주술적인 성격의 동물은 오늘날까지 토속신앙의 주술적 형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유물 중 상상의 동물은 민간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동물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해 인간의 상상만으로 추리하여 그 형상을 만들었다. 인간은 상상의 동물을 통해서 절대, 완전 등의 초인간적 의지를 열망하는 인간의 바램을 표현해 왔었다.[5] 그렇게 만들어진 상상의 동물은 인간을 이롭게 해주며 악귀를 쫓는 영험한 부적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한다고 믿었다. 현존하는 유물 중 벽사의 의미를 갖는 해치(해태)나, 궁궐 처마 끝에 있는 취두(鷲頭)와 용두(龍頭)【도판12】, 귀면(鬼面) 등은 각각 한국 전통 문양이나, 상상의 동물 형상을 나타내며 쓰임에 맞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원초적 감정인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한 의식의 한 방편으로 행해졌던 주술은, 인간의 열망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영험성을 만들어 내었다.

3) 애니미즘(Animism)

애니미즘이란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자연물은 살아 있고 각기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사상으로 자연물에 인간이 영혼이입을 함으로써

5) 임월령,「상징주의 회화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pp.4~17

dCollection @ sungshin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작용은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무의식적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6)]

선사시대 원시인들은 수렵과 채집을 하는 씨족 집단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계절 변화에 따라 주거 공간을 이동하며 살 수 밖에 없었음으로 자연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였지만 경이로움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개별적인 신앙이 성립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자연물들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연의 신성한 힘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존재를 믿었다.

원시인들은 신에게 곡식의 풍요를 기원하거나, 자연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의식, 혹은 강해지기 위한 의식으로 종종 주술을 이용하였다. 한 예로 뉴우기니아의 세파강 유역에서 출토된 <새>를 머리에 앉은 남자상의 팔다리는 대부분의 원시인들이 죽은 자를 매장할 때 즐겨 채용하는 태아의 자세를 암시하며, 머리의 뒤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날개를 가진 새는 조상의 영혼 또는 생명력을 표시하고 있다.[7)] 이것은 죽은 자에게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어 행하여졌던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도 의미를 두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매개체로 한 주술의식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애니미즘은 무생물에게도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술의 행위를 통해 모든 사물을 신격화 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주술적 성향은 오늘날에도 원시적인 아프리카 부족들의 풍습이나 관습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사물에 영혼이입을 하는 신앙이 존재함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애니미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각인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영적 작용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보여 진다. 그것은 이원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신체적인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영혼의 세계로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온갖 현상의 배후에는 신비로운

6) 임두빈, 『원시미술의 세계』 가람기획, 2001, p.30
7) 임월령, 「상징주의 회화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1 pp.8~9

dCollection @ sungshin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상상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8] 그러므로 애니미즘은 원초적 신앙이 발전하여 살아 있는 동물에게 신비한 능력이 존재한다고 믿는 토테미즘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4) 토테미즘(Totemism)

토테미즘의 의미는 초자연적인 동지 또는 조력자이다.[9] 애니미즘과 마찬가지로 영혼이입에 의해 생겨난 사상으로, 특정한 동물이 씨족이나 부족의 조상과 친연관계에 있다고 믿고 그 동물을 숭배하고 보호하는 행위에 영혼이입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10]

자연과 어울려 생활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선사시대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동물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동물세계의 특성을 잘 알게 되었는데, 동물보다 사람이 우위에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간의 여러 가지 본성이 동물계에도 동등하게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들의 부족의 구성원 속에 동물과 사람을 같이 포함시켰다.

이러한 동물의 특징 중에는 강하고 빠른 성질이 있는데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닌 동물의 이름을 부족의 명칭으로 사용함으로 그 부족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는 상징성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선사시대인이 토템으로서의 동물을 암벽에 그리는 목적 중에는, 종족집단을 수호해 주고 자손의 번창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상신이나, 보이지 않은 세계의 정령의 힘이 토템이 되는 동물그림 속에 내재하여 주술의 영향을 받아 그들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혈연관계에 있다고 믿는 토템 동물을 그림으로써 그들 종

8) 최은미, 「원시미술의 주술적 의미와 조형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16
9) 레오나드로 아담, 『원시미술』 동문선, 1999, p.118
10) 임두빈, 『원시미술의 세계』 가람기획, 2001, p.116

dCollection @ sungshin

족의 번창을 촉진시킨다고 생각하였다.[11] 그러므로 토템은 한 가지 개별적인 동물이 아니라 그 종족 전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토템에 대한 부족들의 의례 중에서 가장 공통된 특징은 그 종(種)을 먹을 수 없다는 것과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동물을 존경하는 것이다.[12]

우리나라 유물 가운데 출토된 '신라 금관' 【도판8】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토테미즘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신라 지배층의 유물인 금관은 그 구조가 이마에 대는 대륜을 기초로 하여 위로 올라가는 장식과 아래로 떨어지는 수식(垂飾)이 있다. 장식은 정면과 양 측면에 있는 나무모양의 수지형(樹枝形)장식과 머리 뒷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슴 또는 순록의 뿔 모양의 녹각형(鹿角形)장식이 있다. 수지형 장식의 의미는 신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유목민의 토템인 신수사상(神樹思想)[13]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수사상을 나타내는 녹각형 장식과 함께 윗부분에는 신라의 토템인 새가 장식되어 있는데, 새의 특수한 동물적 성향이 왕권을 상징하게 됨에 따라 장식에도 형상이 등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족학적으로 북아시아 유목민 사회에서도 권력자의 탄생과 죽음에는 나무와 새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가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 한국과 북아시아의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솟대【도판11】의 의미로 전통이 이어진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14] 이처럼 토테미즘은 어느 한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토속신앙인 것이다.

---

11) 앞의 책 p.154
12) 레오나드로 아담, 『원시미술』 동문선, 1999, p.121
13) 한국민속학회, 『한국 민속학 학술총서 민간신앙Ⅰ』 민속원, 2008, pp.132~134
신수사상(神樹思想) : '신수'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는 나무를 말한다. 신라인의 시조인 김알지가 계림에서 발견된 설화에서 보이듯이 계림(鷄林)이라는 나무 아래서 시조 신화가 시작되는 것과 금관의 나무 장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 같다. 이런 현상은 고조선의 단군이 신단수(神檀樹)라는 나무 아래서 신시(神市)를 열었다는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다.
14) 앞의 책 p.134

dCollection @ sungshin

3. 동물의 상징성 분류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은 이상적인 세계를 찾고 그와 같은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욕망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사물에 이상적인 세계를 연상시키고 현실적 욕망을 담아 표현한 것이 주술의 사고 원리라고 한다. 그리고 주술성이 담긴 문양을 전통문양이라 할 수 있는데, 전통문양은 자연에 대한 기원과 신령함이 깃들여 있고 행복, 벽사와 길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문양은 상징적 기호에 의해 표현된 미술이라 할 수 있으며,[15] 문양은 감상의 미(美)를 추구함과 동시에 상징적 조형물로서, 인간의 염원과 기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을 표현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문양은 약속된 부호처럼 각각의 쓰임에 맞도록 다양한 곳에 사용되었다.

【표 1】 사신(四神)과 사령(四靈)을 중심으로[16]

<table>
<tr><th>명 칭</th><th>종 류</th><th colspan="3">의 미</th></tr>
<tr><td rowspan="4">사 신
(四 神)</td><td>청룡(青龍)</td><td colspan="3">동쪽 방위의 목(木) 기운을 맡은 태세신(太歲神)을상징. 무덤 속 관의 왼쪽에 그려졌으며, 풍수에서는 주산에서 갈리어 나간 왼쪽 산맥을 의미.</td></tr>
<tr><td>백호(白虎)</td><td colspan="3">서쪽 방위의 금(金) 기운을 맡은 태백신(太白神). 풍수에서는 주산에서 오른쪽으로 뻗어 나간 산맥을 가리킴.</td></tr>
<tr><td>주작(朱雀)</td><td colspan="3">남쪽을 맡은 수호신으로, 무덤과 관의 남쪽 벽에 그려짐.</td></tr>
<tr><td>현무(玄武)</td><td colspan="3">북쪽을 맡은 수호신으로, 무덤의 북벽이나 관의 뒤쪽에 그려짐. 태음신을 상징하는 지신(地神)이며 또한 수신(水神)이다.</td></tr>
<tr><td rowspan="14">사령(四靈)
- 용, 봉황, 거북, 기린을 함께 일러 사령(四靈)이라함. 천상계에서 지상에 길흉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나타나는 영수임.</td><td rowspan="12">용(龍)</td><td colspan="3">상상의 동물. 권위와 조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물임. 긴 세월을 통하여 도상적인 특징을 지니됨.</td></tr>
<tr><td rowspan="11">용의
종류</td><td>비희(贔屭)</td><td>일명 패하(霸下). 무거운 것을 지기 좋아함. 돌비석 아래에 있는 귀부(龜趺)가 이것임.</td></tr>
<tr><td>이문(螭吻)</td><td>먼 곳을 보거나, 높은 곳을 좋아함. 전각(殿閣)지붕위 짐승머리를 가르킴. 조풍(嘲風)이라고 함.</td></tr>
<tr><td>포뢰(蒲牢)</td><td>소리지르기를 좋아함. 종(鍾)위에 있음.</td></tr>
<tr><td>폐안(狴犴)</td><td>일명 헌장(憲章)이라고 함. 모양은 호랑이를 닮았는데, 위력이 있어서 옥문(獄門)에 세움.</td></tr>
<tr><td>도철(饕餮)</td><td>먹는 것을 좋아함. 솥의 뚜껑에 세움.</td></tr>
<tr><td>공하</td><td>물을 좋아함. 다리의 기둥에 세움.</td></tr>
<tr><td>애자(睚眦)</td><td>죽이기를 좋아함. 칼의 콧등이나 칼자루에 새김.</td></tr>
<tr><td>초도(椒圖)</td><td>소라모양을 닮았고, 닫기를 좋아하여 문고리에 붙임.</td></tr>
<tr><td>천룡(天龍)</td><td>신의 저택을 수호함.</td></tr>
<tr><td>신룡(神龍)</td><td>바람과 비를 일으켜 인간을 이롭게 함.</td></tr>
<tr><td>복장룡(伏藏龍)</td><td>인간의 눈에 가리어 볼 수 없는 부(富)를 지켜줌.</td></tr>
<tr><td>봉황
(鳳凰)</td><td colspan="3">수컷인 봉(鳳)과 암컷인 황(凰)을 함께 이르는 말.
용과 학이 연애하여 낳았다는 상상의 새. 고상하고 품위 있는 모습 때문에 왕비에 비유 됨. 상서로운 새로 여겨져 궁궐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음.</td></tr>
<tr><td>거북
(龜)</td><td colspan="3">실제 동물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동물로 변하였음. 주술적 효능이 있다 하여, 껍질이 불에 구워 진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치기도 함. 또한 수명이 긴 생태적 속성에 때문에 영년불사(永年不死)의 상징됨.</td></tr>
<tr><td>기린
(麒麟)</td><td colspan="3">용과 암말이 결합하여 낳았다고 함. 수컷이 기(麒)이고 암컷이 린(麟). 어진 군자가 나타나면 세상이 편안해질 징조인 길상영수(吉祥靈獸)로 여겨졌음.</td></tr>
</table>

15) 허 균,『전통문양』대원사, 1995, p.14
16) 임영주,『한국전통문양』대원사, 1998 ; 『한국의 전통문양』대원사, 2004
허 균,『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동아출판사, 1991 ; 『전통문양』대원사, 1995

dCollection @ sungshin

【표 2】 동물을 중심으로[17]

명 칭	종 류	의 미
동 물	호랑이(虎)	재앙을 물고 오는 맹수이기도 하고, 잡귀를 물리치는 영물이기도 함. 병을 막아주고 복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믿어짐. 호랑이 그림은 잡귀를 쫓는 벽사의 기능이 있다.
	사 슴	미려한 외형과 온순한 성격을 가진 동물로 예로부터 선령지수(仙靈之獸)로 알려짐. 장수의 상징.
	코끼리	한자어 상(象)이 길상(吉祥)의 상(祥)과 같이 발음되어 길상의 상징물로 취급됨.
	원숭이	이후. 후(猴)와 후(侯)의 발음이 같아 제후(諸侯)의 의미를 지님. 관직 등용의 의미
	소	소의 느리고 유유자적함과 같이 인간도 여유를 가지고 사물을 보고자 했음.
	고양이	야행성 때문에 고양이가 있으면 귀신들이 근접하지 못한다는 속신이 있어 벽사의 상징물로 간주
	박쥐	편복(蝙蝠)의 복(蝠)이 복(福)과 소리가 같아 행복의 상징으로 여김.
	뱀(巳)	땅속에 숨어 사는 동물로 지신의 성격을 지님.
	십이지신	각 방위를 담당하는 짐승의 형상.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를 일컬음. 일년 열두 달서로 교대하며 밤낮으로 인계(人界)와 천계(天界)를 돌아다님.
새	학	장수의 상징.
	까치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희작(喜鵲)이라함. 호랑이와 같이 등장하여 길상의 의미를 가짐.
	닭	닭이 울면 모든 잡귀가 사라진다고 생각함. 벽사그림을 그림.
	공작(公雀)	최고로 높은 관직을 상징하는 새. 문관으로서 입신출세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여겨짐. 길상의미
	백로	연밥이나 갈대와 함께 등장. 일로연과(一路蓮科)곧 한길로 과거에 급제한다는 뜻을 의미.
	원앙(鴛鴦)	한쪽을 잃으면 새로운 짝을 얻지 않는다고 하여 부부간의 정조와 애정, 백년화목의 상징
	기러기	철새인 기러기는 계절변화를 상징. 또한 안서(雁書)라는 말과 같이 소식을 전해주는 새
	오리	행복과 생산의 상징으로 여겨짐.
	꿩	화려하고 품위있는 성품으로 관복의 장식으로 쓰임. 지조가 굳어 변치 않고 덕이 큼을 상징함.
상상의 동물	해치(獬豸)	대단히 영물 스럽고 사람의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신령스러운 재주가 있음. 궁궐의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 또는 벽사(辟邪)의 의미로 장식됨.
	산예(狻猊)	산예는 사자를 말함. 위엄이 있고 용맹스러워서 신물(神物)로 여겨왔음. 벽사의 기능.
	불가사리 (不可殺伊)	쇠를 먹고 사는 상상의 동물. 역질을 쫓고 악귀를 물리침. 태풍을 집어삼킬 정도의 위력이 있음.
	백택(白澤)	상상의 동물로 유덕한 임금의 치세 때 나타나며 만물의 실정(實情)에 정통하고 사람의 말을 한다는 신수(神獸). 제군(諸君)의 흉배(胸背)를 장식.
	웅비(熊羆)	곰을 말함. 사납고 힘이 세어 수목을 뽑을 수 있다 함. 무관 삼품의 흉배 문양으로 사용됨.
	치미(鴟尾)	큰 건물의 용마루나 지붕골의 끝에 얹는 기와의 일종. 용을 잡아먹고 산다는 전설의 물고기 꼬리. 길상과 벽사의 상징.
	취두(鷲頭)	용을 잡아먹고 산다는 솔개(독수리)의 머리 형상인데, 치문이라 불리기도 하는 특수한 기와를 뜻함.
	잡상(雜像)	추녀마루 위에 얹은 신상의 장식. 궁궐의 길상안정(吉祥安定)과 소멸재화(消滅災禍)를 염원하고, 이 전각에서 정사를 돌보는 임금의 공정무사(公正無私)를 빌고, 삿된 의도를 미리 제거한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임.
상상의 새	삼족오(三足烏)	고대 전설에 나오는 태양속의 다리 셋 달린 까마귀.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쓰임.
	금계(金鷄)	문무용인신(文武勇仁信)의 다섯 덕을 지니고 있다 하여 고귀존영(高貴尊榮)의 상징으로 애호.
	가릉빈가 (迦陵頻伽)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새. 사는 곳이 극락정토여서 극락조(極樂鳥)라 부르기도 함. 옛사람들은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빌며 이 새를 장식으로 사용함.
	팔가조(叭哥鳥)	까마귀의 일종. 부모가 늙으면 모이를 물어와 봉양하는 습성이 있다하여 효금(孝禽) '효도를 아는 새' 라 불림.
	백한	꿩과에 속하는 새. 문관 삼품 흉배 문양으로 사용됨.
	연작(練鵲)	문채(文彩)가 있고 꼬리가 길며 부리는 짧고 적색인 산까치를 말 함. 미래를 아는 새라고 함.
어 류	잉 어	「어변성룡도」- 힘차게 뛰어 오르는 잉어가 변하여 용이 되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출세의 염원을 담고 있음. 「효자도」- 엄동설한에 부모에게 잉어를 먹이기 위해 얼어붙은 강물을 두드리니 신령스럽게 잉어가 튀어 나왔다는 효행 설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효행의 상징물이다.
	쏘가리(鱖)	궐(鱖)자가 궁궐의 궐(闕)과 발음이 같아서 관직 등용으로 여김.
	메 기	미끄러운 몸체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물을 훌쩍 뛰어 넘어 대나무 꼭대기에 잘 올라간다는 설화의 내용과 관련, 관직 등용과 출세를 상징.
	쌍 어	조화, 화합 또는 부부 화합의 뜻이 있음.
	※자유롭게 놀고 있는 여러 마리의 모습을 그린 물고기 문양은 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을 의미.	

17) 임영주, 『한국전통문양』 대원사, 1998 ;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4
허 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동아출판사, 1991 ; 『전통문양』 대원사, 1995

dCollection @ sungshin

4. 전통속의 조령신앙(鳥靈信仰)

신석기 시대에 조류는 식료의 위치로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가 식료의 위치에서 신앙으로 변모하기 까지는 토템(Totem)으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토템의 강한 성향 중 주술적 동물신앙은 새에게 영혼이입을 하여 숭배물로 여길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토템이 부족들을 방위하고 보호하리라는 믿음 즉, 부족과 토템 대상 사이에 상호 존중 및 상호 보호 관계에서 성립하는 하나의 종교체계인 동시에 사회체계[18]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향으로 조령신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상징물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 예로 한국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새는 봉황이고,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는 고대 로마를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티베트인들 역시 독수리를 신조로 여겼는데, 천장(天葬)을 할 때에 시신을 독수리에게 제공해주면 망자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이처럼 어느 민족이든 전통적으로 길조로 여기는 새가 있는 법이다.[19]

조령신앙이 사회체계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국가의 설립에 있어 빼놀 수 없는 설화와 일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국호는 계림국(鷄林國)으로 김알지 설화(說話)[20]에서 알 수 있듯이 흰 닭이 출현한다. 곧 백계(白鷄)는 신라의 시조 설화에 등장하는 신조(神鳥)이며, 신라 건국 영웅의

---

18) 김주미,「한국의 日象文 硏究 -東夷系 韓 民族의 文化 系統을 中心으로-」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7

19) 임재해,『신라 금관의 기원을 밝힌다.』(주)지식산업사, 2008, p.570

20) 김알지 설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려 있다. 65년(탈해왕9) 8월 4일 호공(瓠公)이 시림(始林) 속에서 큰 광명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는데, 구름 가운데 황금궤가 나무 끝에 걸려 있고 그 빛이 궤에서 나오며,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어 왕께 아뢰었다. 왕이 숲에 가서 궤를 열어보니 사내아이가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이는 박혁거세의 옛 일과 같으므로, 박혁거세를 알지라 한 선례에 따라 이름지었다. 아기를 안고 대궐로 돌아오니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르며 기뻐하였다. 왕이 좋은 날을 받아 태자로 책봉하니 그가 곧 김알지이다. www.naver.com 네이버백과사전

dCollection @ sungshin

출현을 알리는 천조(天鳥)이자, 신라의 국가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조(國鳥)[21]인 것이다. 그래서 신라 왕권의 최고 상징물로 새가 등장하고, 신라 최고의 상징물인 금관에서 천계로 형상화 되어 나타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새는 왕권을 상징하는 국조(國鳥)로서 큰 영험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는 새의 등장이 일상문(日象文)으로 나타난다. 일상문은 태양숭배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림인데, 바로 이 그림의 안쪽에 삼족오(三足烏) 【도판4】가 등장한다. 삼족오는 날개와 다리가 셋 달린 상상의 동물로 까마귀를 신격화 한 것이다. 까마귀는 현조(玄鳥)라 불리며 검은 색을 띈 제비【도판6】, 독수리, 까치 등과 함께 오늘날과는 다른 길조로 여겨졌다. 그 이유는 일상문 안의 현조 표현은 신비한 하늘(天)의 대표적 물상(物象)인 태양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千字文』에서 '하늘 天 땅 地, 검을 玄 누를 黃' 이라 한 것과 같이, 하늘(天)이 검다는 것을 현조(玄鳥)로 표현한 것이며, 이때 현(玄)은 단순히 검다는 의미가 아닌 오묘하고 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22] 태양숭배의 상징인 일상문에서 삼족오와 태양의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 것은 태양과 새가 같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이다. 그만큼 새가 신조(神鳥)로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는 하늘을 나는 모습 때문에 신비의 힘을 지닌 새로, 인간계와 천상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믿어 정령(精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솟대【도판11】에서도 볼 수 있다. 솟대는 긴 장대와 그 위에 올려진 새를 일컫는데, 바로 이 긴 장대가 인간계와 천상계를 연결시켜주는 길목인 샘이고, 그 위의 새가 왕래를 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 되어 진다. 농경의 시작으로 풍년을 바라는 인간은 새가 곡식을 가져다

21) 앞의 책 p.572
22) 김주미,「한국의 일상문 연구 -동이계 한 민족의 문화 계통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99

dCollection @ sungshin

주어 농경을 시작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곡령(穀靈)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솟대의 새는 지방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체로 오리와 까마귀로 나타낸다. 특히 오리는 하늘과 육지 그리고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시간의 재생과 농경의 주기성 등과 맞물려 하나의 조령신앙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솟대는 일 년에 한 번씩 제를 올릴 때에 새로운 나무로 다시 만들어 지는데, 솟대를 세움으로서 그 곳이 신성한 공간이 되고, 그 지역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장승과 함께 솟대를 세워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솟대가 있는 마을이야말로 신령한 보호를 받아 삶의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 하였다. 그래서 솟대는 마을의 안위와 풍년, 그리고 한 해의 액막이를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물인 것이다.

이처럼 새는 인간의 무의식속에서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천신의 전령사로 자리 잡아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창공을 나는 새의 모습 때문에 부러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아직도 다양한 문화의 곳곳에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dCollection @ sungshin

5. 한국의 전통과 현대미술에 나타난 동물의 이미지

1) 한국의 전통을 중심으로

과거의 예술은 무당이나 주술을 주관하는 샤먼을 통하여 목적이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 목적을 지닌 샤먼은 우리가 주술적 세계관을 통해 인간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중간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과거의 유물들은 예술로서의 기능과 주술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 선조들은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혹은 장식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 때에도 기능적인 측면만 생각하여 제작하지 않았다. 필요로 하는 물건은 쓰임에 맞는 기능과 미적인 요소와 함께 길상과 벽사의 의미가 있는 문양을 새겨 넣어 그 시대의 영적인 사유관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물이나 마을 입구에는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는 동물형상을 두어 수호신의 역할로 부적과 같은 역할을 기원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는 동물의 주술성은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 까지 유물로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주술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역사 속에서 영험함을 찾게 되었다.

그 가운데 '새' 는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여러 의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농경문화 속 '새' 의 의미와 권위의 상징 그리고 신앙으로서의 '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도판1】, 【도판2】, 【도판11】은 농경과 관련 있는 새로 볼 수 있다. 농경의 시작과 함께 풍요를 바라던 인간은 새가 인간에게 종곡(種穀)을 가져다주어 그 곡식으로 농경을 시작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23] 하늘을 나는 새가 곡식을 운반해주고, 새가 알을 품어 부화하는 것처럼 곡물도 발아하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또한 마을의 안

23) 국립 김해박물관, 『영혼의 전달자(The messenger of Soul)』 2004, p.23

dCollection @ sungshin

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서【도판11】의 솟대는 가장 중요한 위치인 마을 입구에 세워진다. 솟대의 새는 주로 오리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역마다 다른 새를 지칭하기도 한다. 철새인 오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철새의 이동 시기와 농경의 시기가 맞아 곡령(穀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리의 습성이 물과 지상을 오고 가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물을 주거나 화재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상징성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새가 신격화 되면서 점차 권위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도판3】,【도판6】,【도판7】,【도판8】이 여기에 해당된다. 새가 왕의 상징으로서 나타나는【도판6】의 제비모양 뒤꽂이나,【도판8】의 금관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들로서 왕권이 새를 상징화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새가 지닌 의미 또한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도판3】과【도판7】은 무인의 권력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단순한 무기가 아닌 권력의 상징을 나타낸다. 이는 새 혹은 새의 깃털로 장식을 하던 제사장이 무(武)를 기반으로 한 정치력을 더한 모습으로 새로이 탈바꿈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4] 특히【도판3】은 실전용 갑옷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의 의미가 특별하다. 전투에 앞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제의용 갑옷으로 의례용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는 곧 새가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판5】,【도판9】은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 해줄 수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새의 상징성은 더욱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의례(儀禮)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보면 닭과 같은 새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귀한 음식이 곧 권력과 제의(祭儀)의 상징으로서 등장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형상화된 새의 경우【도판5】의 백제금동대향로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권위와 위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도판9】의 가릉빈가(迦陵頻伽)는 불교적 성향을 지닌 상상의 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새는 극락정토에 깃들이며 사람의 머리에 새

24) 앞의 책 p.93

dCollection @ sungshin

의 몸을 하고 있다는 상상의 동물이다.[25] 극락조(極樂鳥)나, 금시조(金翅鳥)로 불리기도 한다. 봉(鳳)형에서 발전한 형상이라 볼 수 있으며, 영적인 인격신으로서 동물 형상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새는 막연한 동경의 대상에서 점차적으로 인간의 의식화를 통하여 현실세계로 다가 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본인의 작품제작에 참고가 된 예시작품은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와 구상표현주의(Figural Expressionism)의 경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추상표현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혼돈의 시기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예측불허의 즉흥적 표현에 관한 연출을 함으로 기존의 형식을 탈피하고 압박과 기하학적인 추상미술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열정적인 행위로 작품을 나타내었고, 잠재의식 속에 있던 작가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추상성이 표현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구상표현주의는 추상화의 경향이 득세하던 미술계에 반발하여 구상적인 회화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한 미술운동을 말한다. 미술의 외형을 넘어선 진실을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자신들의 의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한도에서 형상을 고수하려는 운동이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1~4】는 작가의 즉흥성이 강조된 추상표현의 예시작품 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이입의 절차를 통하여 본인의 추상적인 감정표출에 따라 작업을 진행 하는 점에 참고가 되었다. 또한 동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원시적 경향을 지닌 작품들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상이 나타나는 추상성은 본인의 작품인 동물의 형상을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참고가 되었다.

---

25) 임영주, 『한국의 전통 문양』 대원사, 2004. p89

dCollection @ sungshin

【작품5~9】에서 보이는 간결하게 정리된 형태들은 구상표현주의가 나타나는 예시작품 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가운데 '새' 의 형태를 단순화 하였고, 정리된 선들에 의해서 함축적 이미지가 보이도록 하였는데, 특히 간결한 선들로 인하여 이미지가 부각되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상은 작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심층적인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참고가 된 점은 단순화된 형상을 표현함으로서 함축적 의미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추상적인 감정표출은 본 논문의 주제와 연결성이 있도록 위의 사료들을 통하여 차용과 변용의 과정을 거쳐 제작하였다. 그리고 작품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내면의 의미가 정리된 선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범주 안에 기틀을 마련하였고, 함축적인 의미가 부각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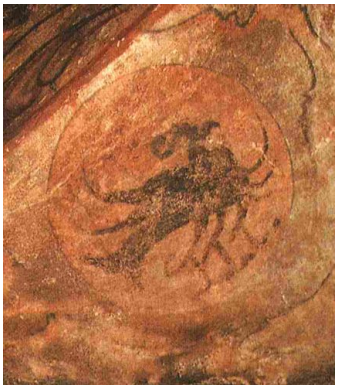
dCollection @ sungshin

참 고 도 판

【도판1】 새무늬(청동기)

【도판2】 오리 토기(삼한)

【도판3】 새장식 판갑(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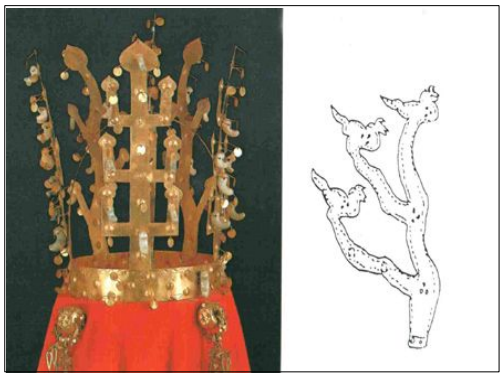
【도판4】 쌍영총 벽화 삼족오(고구려)

【도판5】 금동대향로 뚜껑 꼭대기의 봉황(백제)

【도판6】 금제 제비모양 뒤꽂이(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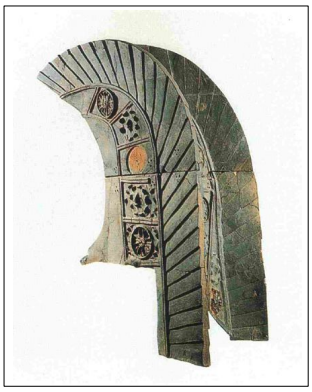
【도판7】 환두대도 봉황장식(백제)

dCollection @ sung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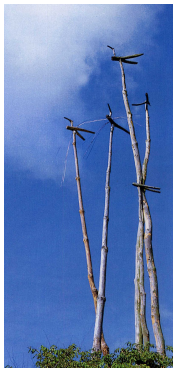


【도판8】 새모양 관식 및 입식 부분 그림(신라)

【도판9】 가릉빈가(통일신라)



【도판10】 치미(통일신라)



【도판11】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의 솟대

【도판12】 지붕 합각 부분의 용두와 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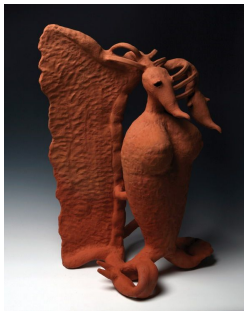
【도판13】 창경궁 명정전
지붕 위의 잡상

dCollection @ sung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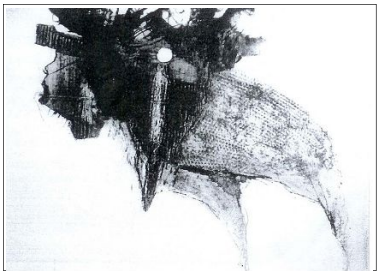
참 고 작 품

【작품1】 잡상이미지 I <한정연 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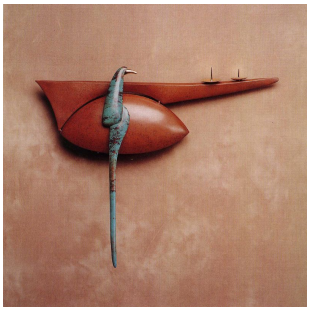
【작품2】 숭배 <심연종 作>



【작품3】 새 수호신 resize
<조영국 作>



【작품4】 Animals <곽태임 作>



【작품5】 자유같은 그리움
<박명숙 作>

【작품6】 그자리에 서서
<백경화 作>

【작품7】 구름을 타고 나는 새야
<박명숙 作>

【작품8】 백제의 꿈 <이상우 作>

【작품9】 Bird 0902 <강형구 作>

dCollection @ sungshin

4. 시작품 제작 및 설명

1) 제작의도

전통의 형태와 문양 속에 각각의 주술적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고 동물의 형상 가운데 '새' 를 중심으로 하여 주술적 해석을 영험성이란 주제로 해석하고자 한다.

본인의 조형의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시미술의 이해

주술성 속에 내재된 영험성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전통문양에 대한 이해

각각의 문양에 담긴 함축적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인식하고, 다양한 관념이 인간 내면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단순 절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추상성

형태구조를 단순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제미는 대상을 상징화 하는 과정으로서 주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넷째, 현대도예의 다양한 표현방법 연구

현대의 작품들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차용 및 변용하였다.

다섯째, 도자물성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점토의 성질, 유약과 다양한 발색의 산화물 그리고 소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dCollection @ sungshin

2) 제작과정

• 태 토

고온에서의 기계적 강도와 가소성이 좋은 조합토를 사용하였다. 고운샤모트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조합토는 성형이나 건조, 소성과정에서 발생되는 균열이나 뒤틀림 등 작업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태토의 조합비는【표 3】과 같다.

【표 3】 조합토의 조합비

(%)

원료	장석	규석	도석	홍콩점토	카올린	규회석	샤모트	계
조합비	5	15	20	35	15	3	7	100

• 성 형

동물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동물의 특징을 단순하고 절제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이러한 형태를 추구함에 따라 원근법을 무시하여 부조의 느낌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형태를 입체화함으로서 부동적인 느낌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입체화된 부조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형태의 중요부분은 흙을 전체의 크기에 맞게 쌓아 올린 후 와이어(Wire)로 커팅(cutting)을 하여 속파기 기법으로 외형을 유지시켰다. 또한 각각 분리된 형태들을 앞, 뒤로 이동시켜 평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공간을 보여줌으로 창조적인 공간개념을 만들어 작품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또한 흙 판을 둥글게 말아 질감이 다르도

dCollection @ sungshin

록 하였고, 흙을 덧 입혀 거친 질감을 나타내었다.

· 유 약

작품에 시유된 유약은 형태에 맞는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유의 분무시유법과 테라시질라타(Terrasigillate)로 나눌 수 있다. 생유의 사용은 오래된 느낌을 재현하고자 산화철을 바르고 닦아내었다. 그리고 무광백유와 재유를 두껍게 시유하였고, 산화철의 발색이 고태된 느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테라시질라타는 회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초 작업으로 무광 흑유를 전체 분무시유하였다. 또한 단조로운 흑유의 색감에서 탈피하고자 강조되는 부분에서 골드망간유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외형이 잘 나타나도록 형체의 입체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테라시질라타와 시판되고 있는 영국제 중화도(1000℃~1030℃) 안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dCollection @ sungshin

【표 4】 유약 조합비

(%)

원료 \ 유약		무광 백유	티탄 백유	재유	철 티탄유	골드 망간유	무광 흑유
원료명	화학식						
인도장석	$K_2O \cdot Al_2O_3 6SiO_2$	38	30	40	36	5	42
부여규석	SiO_2	9	16	5	27	·	5
금산석회석	$CaCO_3$	10	12	5	8	·	13
인도네시아 카오린	$Al_2O_3 \cdot 2SiO_2 2H_2O$	4	19	5	3	·	22
백운석	$CaCO_3 \cdot MgCO_3$	·	11	20	·	·	·
탄산바륨	$BaCO_3$	5	·	5	·	·	·
결성활석	$3MgO \cdot 4SiO_2 H_2O$	22	·	·	·	·	·
산화티탄	TiO_2	·	12	·	12	·	·
규산지르콘	$ZrSiO_4$	12	·	·	8	·	·
산화철	Fe_2O_3	·	·	·	4	·	14
산화망간	MnO_2	·	·	·	2	35	2
산화크롬	Cr_2O_3	·	·	·	·	·	2
산화동	CuO	·	·	·	·	5	·
산화코발트	CO_2O_3	·	·	·	·	3	·
옹기토	·	·	·	·	·	48	·
재	·	·	·	20	·	·	·
와목	·	·	·	·	·	4	·
계		100					

dCollection @ sungshin

【표 5】 테라시질라타(Terrasigillate) 조합비

(%)

원료	조합비
볼클레이	32.35
탄산나트륨	0.5
물	67.15

【표 6】 중화도 안료

(1000℃ ~1030℃)

안료색상	Deep yellow	Brown	G-pupple	Green	Red brown	Co-blue	B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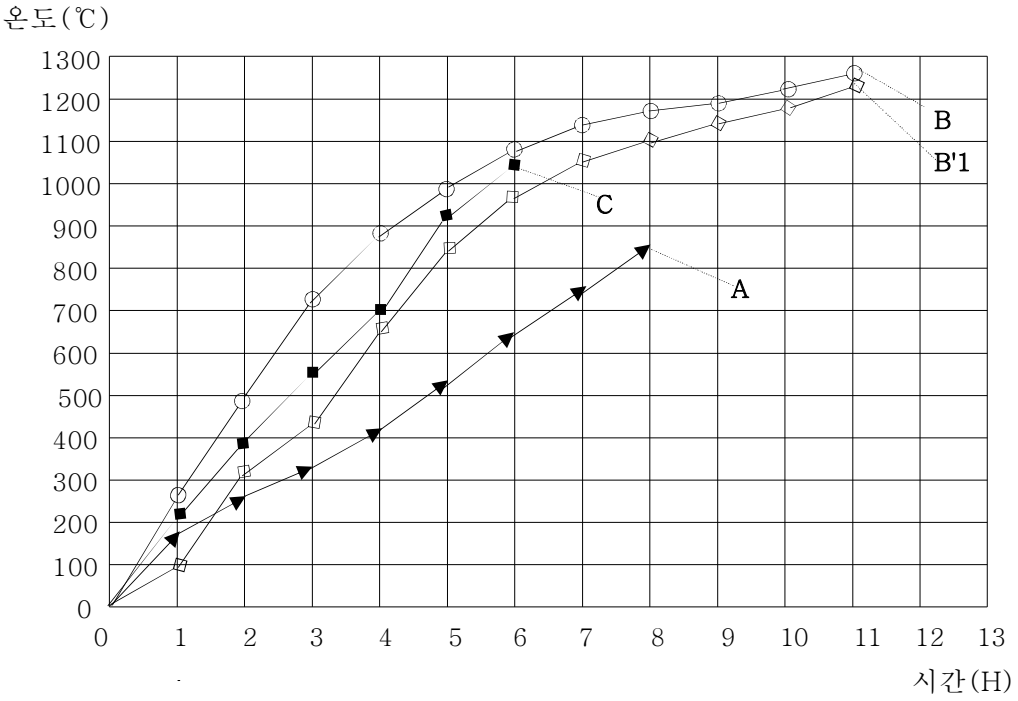
(제조회사명 : Johnson Matthey, 영국)

dCollection @ sungshin

· 소 성

1차 소성은 속파기 기법으로 인한 접합부분과 두께를 고려하여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뒤, 0.3㎥ 전기가마에서 850℃까지 소성하였고, 2차 소성은 유약의 발색을 감안하여 환원소성과 산화소성으로 나누어 소성하였다. 철과 생유의 유착을 고려하여 1250℃ 환원소성하였고, 무광흑유의 경우 전기가마에서 1250℃로 산화소성을 하였다. 테라시질라타의 경우 1050℃로 3차 소성을 하여 안료의 발색이 나타나고 기물에 융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소성 온도표



A: 1차소성 B: 2차소성(환원) B'1: 2차소성(산화) C: 3차소성

dCollection @ sungshin

3) 시작품 설명

【시작품 1】eternity Ⅰ

무광흑유, 골드망간유, 테라시질라타/1250℃, 1050℃/산화소성/조합토(265*110*320mm)

【시작품 2】eternity Ⅱ

무광흑유, 골드망간유, 테라시질라타/1250℃, 1050℃/산화소성/조합토(270*115*300mm)

dCollection @ sungshin

【시작품 3】 eternal bird I

무광흑유, 골드망간유, 테라시질라타/1250℃, 1050℃/산화소성/조합토 (460*200*420 mm)

dCollection @ sungshin

【시작품 4】 eternal bird Ⅱ

무광흑유, 골드망간유, 테라시질라타/1250℃, 1050℃/산화소성/조합토 (380*170*480 mm)

dCollection @ sungshin

【시작품 5】 견심(堅心)의 새

철티탄유,재유,매트백유,산화철/1250° 환원소성/조합토 (580*230*470 mm)

dCollection @ sungshin

【시작품 6】 헤아리다 I

무광흑유,재유,매트백유/1250° 환원소성/조합토 (880*180*390 mm)

dCollection @ sungshin

【시작품 7】 헤아리다Ⅱ

산화철,매트백유,재유/1250° 환원소성/조합토 (640*220*600 mm)

dCollection @ sungshin

【시작품 8】 헤아리다Ⅲ

산화철,매트백유,재유/1250° 산화소성/조합토 (670*250*630 mm)

dCollection @ sungshin

【시작품 1, 2】 eternity Ⅰ,Ⅱ

사람들이 새를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고, 인간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능력 앞에 신격화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이 시작품들은 새의 특별한 신체적 구조를 단순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조형으로, 땅에 부리를 대고 사색하는 새와 멀리 바라보는 새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실제의 모습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새의 영험성을 주장하고자 하였으며, 표현의 일차적 충동을 배제한 가운데 나타나는 절제된 형태감은 현대와 소통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원시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무광택 유약을 분무 시유하여 소성하였고, 3차소성시 테라시질라타와 색안료를 배합하여 특유의 거친 질감 표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시작품 3, 4】 eternal bird Ⅰ,Ⅱ

아직도 동남아시아 고원지방에는 조장(鳥葬)이라는 부장(附葬)제도가 남아 있다고 한다. 시신을 높은 산 나뭇가지에 걸쳐놓으면 새들이 와서 먹게 되고, 그 영혼도 천상계에 편안한 안식처로 안내된다는 설이 전래되고 있다.

【시작품 3】은 창공을 나는 새의 모습을 아래에서 본 모습을 단순, 절제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미지화 하였고, 천상계에 드나드는 길잡이 새처럼 영험성을 소유한 신성한 동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4】는 부리와 다리가 긴 학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깃털을 강조하여 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고려청자 속의 학문양은 장수의 상징으로서 도도한 자태는 당시대의 삶 속에 묻어 있는 정서를 헤아릴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학이 창공을 유영하듯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모습이 조형의지에 모태가 되었다.

dCollection @ sungshin

【시작품 5】 견심(堅心)의 새

미래에 대한 안녕과 풍요로운 시각을 현대적 의미로 조명한 것으로서 발의 형태를 과대하게 표현한 것은 '제압' 이라는 특별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함이다. 새의 몸통부분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묘사한 것이며 아래부분은 움켜지는 힘이 강한 새(매나 독수리종류)의 발을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유나 평화의 유지가 강한 질서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사회의 단상을 영험한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6, 7, 8】 헤아리다 Ⅰ, Ⅱ, Ⅲ

인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근심을 걱정하며 살아오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감에 대한 표현은 주술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품에서 다루고자 하는 '새' 의 이미지는 무겁고 거칠게 표현된 입(부리)속에 현대인에게 필요한 선지식(先知識)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어 절대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높은 곳에서 인간세계를 바라보는 새는 영험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본다.

작품에서 받침이 되는 아랫부분은 새의 날개와 발을 단순화 한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무거운 형태감이 들도록 하여 영험한 기운을 표현해보았고, 상체부분은 부리로 나타내어 흙을 중첩되게 사용하고 거친 질감을 효과적으로 돌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산화철을 여러 차례 사용하여서 중첩된 곳에서 발색이 되어 오래된 느낌이 나도록 시도하였다.

산화철로 인하여 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철의 느낌이 중화되도록 재유를 작품

dCollection @ sungshin

전체에 분무시유하여 소성함으로 차분한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나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눈빛엔
세월의 고심이 담겨 있고
나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눈빛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다.
내가 작은 실수를 할 때엔
이내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조롱하고
내가 시름에 빠졌을 땐
역사의 무거움을 지닌 그 발로
한 걸음에 뛰어와 지켜본다.
내가 의존하면서도 의존할 수 없는 존재.
나는 그들에게
아슬아슬하게 마음을 내 주려 한다.

– 작업 노트 중에서 –

dCollection @ sungshin

Ⅲ. 結 論

오늘날의 미술은 매체의 다양화 속에서 이념의 해체와 결합을 반복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현대도예의 탄생 배경에도 이와 같은 과정에 점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도예 다양성의 발로를 기초로 한 작품의 형식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전통의 소재를 통해 현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서 시작된 작품제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원시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에 관한 조사를 통해 주술적 의미가 민간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원시성이 강한 소재를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조령신앙으로 알 수 있는 '새' 의 숭배신앙이 권력과 곡령의 상징으로 인식된 만큼 숭배적 이미지로 승화시키고 영험성으로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었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작품들의 사례를 통해 형태적인 부분이나 작품의 내면을 표현하는 점에 영향을 받았고, 분야별 차용과 변용의 과정을 거쳐서 시작품제작에 임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험성이 현대미술 속에 한 부분으로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조형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흙의 고유한 특성을 통하여 작품제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반면,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안고 갈 노력의 분량으로 알고 겸허히 작업에 임하겠다.

dCollection @ sungshin

참 고 자 료

<도 서>

김영자,『한국의 벽사부적』대원사, 2008

한국민속학회,『한국민속학 학술총서 04무속신앙』민속원, 2008

한국민속학회,『한국민속학 학술총서 05민간신앙Ⅰ』민속원, 2008

국립민속박물관,『알타이 샤머니즘』2006

국립김해박물관,『영혼의 전달자(The messenger of Soul)』2004

김인희,『동호·퉁구스의 가신신앙[중국동북소수민족연구]』경인문화사, 2004

임영주,『한국의 전통문양』대원사, 2004

레오나르도 아담,『원시미술』동문선, 2001

임두빈,『원시미술의 세계』가람기획, 2001

임영주,『한국전통문양』대원사, 1998

허 균,『전통문양』대원사, 1995

허 균,『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동아출판사, 1991

<논 문>

조현종,「한국 초기 도작문화 연구」전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주미,「한국의 일상문 연구 : 동이계 한 민족의 문화 계통을 중심으로」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노태범,「주술미술의 상징성과 그 형상화에 대한 연구」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곽태임,「동물형상의 상징적 표현에 관한 연구-본인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은미,「원시미술의 주술적 의미와 조형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임원령,「상징주의 회화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dCollection @ sungshin

<학술지>

황영식,『고대 한·중·일 민족 새 숭배 흔적 : 계명대 김양동 교수 '금문 唯자 고찰' 논문발표』한국일보사, 주간한국 1750호('98. 12. 17), p.54~57

<영상자료>

강릉MBC 특별기획,『우주나무와 하늘 새 솟대』2004제작

<참고도판>

【도판 1,5,8,9,10】국립 김해박물관,『영혼의 전달자』, 2006

【도판 2,4,7,12,13】임영주,『한국의 전통문양』대원사, 2004

【도판 6,11】임영주,『한국전통문양 제3권』예원, 1998

【도판 3】허 균,『전통문양』대원사 1995

<참고작품>

【작품8】백제의 꿈 <이상우 作>, 한국공예가협회 회원전, 2006

【작품4】Animals <곽태임 作>,「동물형상의 상징적 표현에 관한 연구-본인작품을 중심으로-」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작품9】Bird 0902 <강형구 作>, 한국공예가협회 회원전, 2004

【작품1】잡상이미지 I <한정연 作>,「잡상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 조명등 연구」 성신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작품2】숭배 <심연종 作>,「원시적 이미지의 뿔 조형 연구」 성신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작품5, 7】자유같은 그리움, 구름을 타고 나는 새야 <박명숙 作>,「새(鳥)형상의 표현연구」성신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작품6】그 자리에 서서 <백경화 作>,「새의 조형화 연구」 성신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작품3】새 수호신 resize <조영국 作>, www.claypark.net, 홍익대학교도예연구소

dCollection @ sungshin

ABSTRACT

The Study of expressing Ceramic Art on the theme of miracle

An, Mi Ae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ceramic can be said to have the tendency which complies with the change and tradition because it has developed with a life. However, the modern ceramic art is showing a more innovative and sensational aspect than any other time getting out of the old fashion, the diverse expression media and experimental formative expression greatly affected the world of art.

This treatise intends to find the distinctive ceramic expression based on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culture among the diversity of modern ceramic art.

Hence, I became to pay attention to the faith of bird's spirit related to the 'bird' while analyzing the meaning appeared on traditional relics and patterns centering around the animal. Because, in all ages

dCollection @ sungshin

and countries, I perceived that the diverse description and formative language related to the 'bird' were good materials which can communicate with modern times.

As a result, I expressed what implied the meaning of miracle on the animal shape which had the strong tendency in Animism and Totemism by involving and sublimating a miracle and let an external form appeared by restraining the primary expression be the center of trial product manufacture direction.

I proceeded the project by the drilling technique which made the process of division and junction smooth and was advantageous for prospecting the form for the sake of bringing the sense of form into relief. The discharge of glaze was easy to deliver the theme, and I noted the antique and elegant appearance and tough feelings for the temperance and simplified expression to sustain the abstractness and attempted to make the intensified expression possible partially combining Terrasigillate and low-degree explosive glaze.

dCollection @ sungshin